“온누리에 부처님 법음 전해지길”

천태종 부산 광명사, 3월 29일
미륵대범종각 낙성 · 타종법회
신응수 대목장이 전통양식으로
범종은 원광식 주철장이 주조
총 3700관, 중량 14톤 규모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이 범종을 타종하고 있다.

국태민안과 세계평화를 위해 조성한 광명사 미륵대범종이 모습을 드러내 청정 법음을 온누리에 펼쳤다.

부산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는 3월 29일 경내 미륵대범종각 앞에서 국태민안·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미륵대범종각 낙성 및 타종법회’를 봉행했다. 광명사 미륵대범종각과 범종은 천태법화 사상과 국태민안, 세계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지상 1층 규모에 62.8㎡ 부지, 전통목구조 주심포 양식이다. 육송목재를 사용해 전통기와 조립 방법으로 만들어졌으며 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신응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았다.

범종은 성종사 원광식 주철장이 전통 밀납주조 방식으로 불사했다. 총 3700관, 중량 14톤, 높이 3.2m, 직경 1.9m 규모이며, 성종사 자체 음향분석결과 범종의 1차 기본주파수는 86Hz, 2차 주파수는 193Hz다. 분석에 따르면 신라 에밀레종의 64Hz, 168Hz보다 높다. 맥놀이 주기 역시 20초간 4.5초로 나타났다. 범종 표면에는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미륵불을 동남서북으로 새겨져 있다.

미륵대범종각 낙성과 타종법회는 종정예하 도용 스님을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총무원장 덕수 스님, 원로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세운 스님,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재윤 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천태종 종정예하 도용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렁찬 청정 범음 온누리에 가득하여 용화정토 열어가는 원력으로 이어지니 도솔천궁 미륵불이 도량에 현신하사 일체중생 이고득락 복밭이 펼쳐진다”며 “사부대중의 지극한 정성으로 성취된 대작불사에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의 길로 나아가자”고 설법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치사에서 “범종과 법고를 비롯한 불전 사물은 불보살님을 예경하고 그 공덕으로 일체중생을 해탈하게 하는 중요한 법구”라며 “범종각을 건립하여 사물을 조성해 모시는 불사는 일체중생에 대한 무량자비다. 오탁악세와 무명번뇌의 중생을 해탈의 문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범종소리에 실어 국민화합과 평화적 남북통일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범종 주조에 동참한 각 분야 장인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광명사 미륵대범종의 장엄한 법음이 금정산 맑은 기운과 어우러져 우주 법계로 퍼져 나아가면 시대의 혼란이 극복되고 국민화합과 평화적의 남북통일이 성취된다. 아울러 삼계육도의 모든 중생이 해탈하는 공덕을 입게 될 것”이라고 봉행사를 했다.

범어사 9개 대학 지원…“소중한 인연”

대불련 부산지부와 연합법회
지부 후원금 · 사무공간 지원
(사)상월결사 지원금 약정도
대불련 동문회도 지원 약속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 등 범어사 스님들과 대불련 부산지부 각 대학생, 지도교수 등이 연합법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소속 대학생들이 불교와의 인연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3월 30일 경내 보제루에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범어사를 비롯한 부산불교계는 연합법회에서 대학생불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각 대학 지도법사 및 지도교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각 대학별로 한 학기당 500만원, 1년 동안 총 1000만원의 (사)상월결사 지원금을 약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범어사는 대불련 부산지부에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이숙희 불자는 1억원 상당의 사무공간 비용을 지원했다. 대불련 부산동문회도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는 안도 스님이 임명됐다. 각 대학별 지도법사는 부산대 정수 스님, 인제대 능서 스님, 동명대 원순 스님, 동아대 성종 스님, 부경대 무무 스님, 부산교육대 범해 스님, 동의대 효산 스님, 해양대 담화림 스님, 대동대 동선 스님이다. 지도교수는 부산대 채진영 교수, 동명대 장재진 교수, 동아대 안영희 교수, 대동대 서정 교수, 부경대 권성열 교수, 인제대 김철수 교수, 해양대 설동일 교수, 부산교대 이유리 교수, 동의대 김종오 교수가 위촉됐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부처님과의 인연은 가장 크고 소중하다”며 “소중한 인연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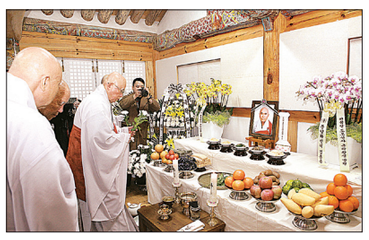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대불련 부산지부가 큰 변화 동력을 얻었다”며 “앞으로 발전을 위해 화합을 강조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불교를 소개해 신심을 다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법회에는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 주지 정오 스님,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을 비롯해 각 대학별 지도법사와 주현우 대불련 중앙회장,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 전정순 대불련 부산동문회장 및 동문회원이 참석했다. 또 권성열 부산교수불자연합회장과 각 대학별 지도교수,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이숙희 불자, 9개 대학 대불련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원묵당 도오 선사 영결식 엄수

세수 74세 · 법랍 50세로 원적
평생 정진하며 100안거 성만



선방의 적막처럼 고요히 수좌의 삶을 살아온 수행자의 사표 ‘원묵당 도오 선사’가 열반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원묵당 도오 선사 영결식’을 4월 3일 경내 암자 극락암에서 엄수했다.〈사진〉 도오 선사는 극락암 호국선원 선원장으로 수행을 지도하며 묵묵히 수좌의 삶을 살아왔다. 선사는 지난 1일 오후 3시 통도사 극락암에서 세수 74세, 법랍 50세로 원적에 들었다.

영결식에는 원명 지종 대종사, 원산 도명 대종사, 법산 경일 대종사, 시명 대종사, 요산 지안 대종사,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 정수·종현·반산·지선·혜원·명본 스님을 비롯해 사중스님들과 도오 스님의 속가 친족, 신행단체 회장 및 재가불자들이 참석했다.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영결사에서 “생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며 죽음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도오 선사는 이 세상에 안 태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50년 동안 선원에서 화두에 전념 수행해왔다. 말없이 정진하며 옴이 없이 오셨다가 감이 없이 가셨다”고 추모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일오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원묵당 도오 선사시여! 따뜻한 봄날에 꽃잎은 하늘거리고, 영축산 새들도 노래해 극락도량을 장엄하는데 어디를 가셨는가”라고 추모한 뒤 “오늘 비록 꽃길 따라 화장 장엄세계 이르셨을지라도 속히 발길을 돌려 사바의 눈 어두운 중생들을 제도하소서”라고 도오 스님의 원적을 안타까워했다.

극락암 감원 관행 스님은 “우중으로 불편한 가운데서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영결식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도오 선사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 수행 정진으로 수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 모습을 따라 저희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도오 선사의 49재는 통도사 극락암에서 4월 7일 오전 10시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 봉행되며, 막재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봉행될 예정이다.

원묵당 도오 선사는 1950년 경북 상주에서 5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스님은 1973년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4년 해인사 퇴설당 안거를 시작으로 용화사, 봉암사, 송광사, 쌍계사, 칠불암, 동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100안거를 성만했다. 도오 선사는 경봉 스님의 수행 가풍을 이어 지난 2004년부터 극락호국선원에서 수좌들을 제접하며 정진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립 50주년 수정문도회 문중총회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문도회 기금 500만원 희사



조계종 비구니 수정문도회(회장 선철 스님)가 3월 29일 부산 쿠무다지하 1층 콘서트홀에서 ‘제50차 대한불교조계종 수정문도회 문중총회’를 봉행했다.〈사진〉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수정문도회의 문중총회에는 고문 선주 스님, 회장 선철 스님, 수석부회장 성정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등 문도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문중총회에서 문도스님들은 회칙 개정안과 조직 개편안 등 문도의 발전과 화합을 주제로 논의했다. 특히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문도회 발전 기금으로 500만원을 희사했다.

광용 스님은 “작은 기금이지만 문도회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많은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이 준비한 작은 공연이 진행됐으며, 봄과 어울리는 클래식 노래로 구성된 공연이 펼쳐져 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목종 스님 유발상좌 42명 수계

사단법인 미소원 회원 대상
“계 받들어 수행정진 매진”



사단법인 미소원 회원 42명이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의 유발상좌로 거듭났다.

대광명사(주지 목종 스님)는 3월 31일 대광명전에서 ‘대광명사 주지 목종 스님 (사)미소원 유발상좌 수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수계식은 목종 스님과 장유정 (사)미소원 이사장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목종 스님은 수계식에서 “삼귀의는 매순간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 판단하고 목숨 바쳐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이다. 오계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 가르침이며 판단과 분별의 지침으로 삼는 안내도와 같은 것”이라며 “잘 지키고 행해 수승한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동훈 작가는 유발상좌를 대표해 “저희들은 지성과 성심을 바쳐 계법을 받들어 행하고 오계를 부처님의 대자대비 광명임을 가슴 깊이 받아 일심으로 수행정진할 것”이라고 발원문을 낭독했다.

대광명사는 이어 유발상좌의 인연을 맺기까지 도움을 준 장유정 이사장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 장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생명나눔실천 및 부산불교환경연대 등 주요 불교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장 이사장은 “이 만남은 일대사 인연이다. 수행 전법하는 가운데 어려움은 망망대해에서 풍광을 만난 것과 같다. 이 인연은 어둡고 힘든 가운데 보이는 밝은 등불을 만난 것과 같다”며 “스님 말씀처럼 계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소원은 제자로 인연을 맺게 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대광명사 유튜브 ‘불교바로보기TV’에 후원금 1080만원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산당 혜원 율사 공적비 제막

혜원정사 창건기념 의미 담아
“고산 스님의 숨결 스민 도량”



고산당 혜원 율사의 열반 3주기를 맞아 공덕비 제막 및 사리탑 봉안식이 봉행됐다.

혜원정사(주지 원허 스님)는 3월 30일 경내에서 ‘묘봉산 고산당 혜원율사 혜원정사창건기 및 공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사진〉

혜원정사 창건기 및 공적비는 경내 해수관음보살상 오른편에 위치하며, 바로 앞에 고산 스님의 사리 3과와 다라니를 봉안한 사리탑을 불사했다. 비문에는 고산 스님의 행장과 공적 그리고 유지가 담겼으며 비문은 전계제자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이 직접 작성했다.

제막식에는 기장 보림사 조실 보광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 고산문도회 문장 영담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고산문도 스님들과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덕민 스님은 비문을 통해 “큰스님의 불식촌음의 유교(遺敎)를 철두철미하게 실천해 큰스님의 법은(法恩)보답한다면 해마다 혜원의 묵은 대나무 밭에 새로운 큰 죽순이 쑥쑥 올라올 것이고 해마다 새로운 꽃송이가 묵은 가지에서 화려하게 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문도를 대표해 영담 스님은 “이곳에 큰스님의 유지가 전해지기까지 노력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히다. 앞으로도 도량을 잘 가꿔주시고 큰스님의 유지인 불식촌음을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허 스님은 “제막식을 준비하면서 큰스님이 생각나 마음이 먹먹한 시간이었다”며 “큰스님의 뜻을 잊지 않고 포교하고 정진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임진왜란 호국영령의 평안 기원”

마이산 자비암 자관 스님
제21회 호국 위령재 봉행



임진왜란 당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대재가 봉행됐다.

동래읍성 아래에 위치한 마안산 자비암(주지 자관 스님)은 3월 31일 경내에서 ‘제21회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재’를 봉행했다.〈사진〉 위령재는 시련을 시작으로 신중작법, 상주권공, 작법무, 축원, 시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은 “이곳 동래성은 임진왜란 당시 성안에 있던 군사들과 백성들이 끝까지 왜군에 저항한 호국도량이다. 여기엔 돌아가신 3500여 명의 영령들이 있다. 오늘 위령재를 봉행하면서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호국영령들께서 편안해지시고 아울러 이 지역주민들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래읍성 근처에 있던 많은 사찰들이 개발과 문화재 복원 등의 이유로 모두 사라지고 이곳 자비암만 남게 되었다. 그 분들을 위해 이렇게 위령재를 지내드리는게 부처님 제자로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는 1592년 4월 15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에 의해 발발한 전쟁이다. 바다 3면이 포위되어 동래부사 송상현 장군을 비롯한 병사와 백성들은 물론 아녀자들까지 일본군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한 전투로 희생자가 3500여 명에 이른다.

이도경 부산지사장